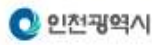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	
		배포일자	2021년 2월 24일(수) 총 3매	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원	담당자	• 식품분석과 김명희 ☎440-5461 • 담당자 김선희 ☎440-5463		
<b>사진</b>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<b>참고자료</b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<b>보 도 시 점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, 플라스틱 제품 사용법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조사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 용기·포장 등 으로부터 분해되어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법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방출 감소 방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미세플라스틱은 인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풍화·마모 과정을 통해 5mm 이하로 미세화된 합성 고분자화합물로 식염, 수산물, 맥주뿐만 아니라 생수에서도 발견되고 있다. 최근에는 티백, 유아젓병 등에서도 엄청난 숫자의 미세플라스틱이 방출된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.
- 현재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유일한 방법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는 것뿐이다. 전 세계 각국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. 우

리나라 또한 화장품 중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였고 색소가 들어간 페트병을 무색으로 변경하는 등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함께 시행중이다.

- 하지만 여전히 먹거리 포장에 플라스틱 재질이 계속 사용되고 있고, 우리는 여기에서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을 계속 섭취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금·후추 그라인더, 티백, 생수병 등 플라스틱이 사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방출 정도를 사용법에 따라 비교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줄일 수 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이끌어 내고자 한다.
-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여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바 없으나, 안심하고 계속 플라스틱을 사용하기에는 그에 따른 위험도가 크고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”이라며, “실생활에서 조금만 노력한다면 환경도 지키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.”고 말했다.

<붙임> 사진자료(식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들)



< 식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들 >